

무애무無怠舞 재현 및 가상 무보舞譜 전망

— 원효元曉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중심으로

채한숙*

1. 서론
2. 『십문화쟁론』의 십문에 대하여
3. 『십문화쟁론』에 근거한 무애무 가상 무보 도안 작성표
4. 결론 및 향후과제

요약문

화쟁은 원효의 대표사상이자 방법론으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고려 속종은 원효에게 ‘대성화쟁국사’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십문화쟁론』은 ‘원효 사상의 총결산’으로 언급될 만큼 주요저작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는 이 『십문화쟁론』을 통해 다양한 불교계 이설異說을 모아 십문으로 분류하여 상위를 화회함으로써 일승불교를 지향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원효의 사상과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화쟁은 이론적으로 논할 경우 불교의 쟁론을 화통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속불이의 무애행을 실현하는 근거 요소이기도 하다. 원효가 무애무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 『화엄경』의 ‘일체무애’는 현실에서의 일체 차별의 화해의 의미도 내포하

*蔡韓淑, 대구시립국악단

고 있으며, 이는 『십문화쟁론』에 담긴 진속 및 공유의 화쟁 등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착안하여 『십문화쟁론』에 근거하여 무애무 재현을 위한 무보의 도안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각 문의 요지를 정리하고 그에 맞는 무보를 도안하여, 이론적 차원의 저술인 『십문화쟁론』과 실천적 차원의 포교가무인 무애무에서 화쟁의 공통 요소를 재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무애무, 원효, 십문화쟁론, 화쟁

1. 서론

이 논문은 원효元曉(617~686)의 사상을 집약한 대표저술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과 그의 실천포교의 결정인 〈무애무無尋舞〉를 결부시켜, 가상의 무보舞譜를 작성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십문화쟁론』의 십문十門의 요지를 각각 정리하고, 이 문의 내용에 맞추어 무애무의 연행 요소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

원효의 사상을 논의하는 데 있어 ‘화쟁’이라는 요소는 그의 대표적 사상이자 방법론으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그 예로 대각국사 의천義天(1055~1101)은 원효는 ‘백가의 서로 다른 논쟁의 실마리를 화합시킨 일대의 위대한 가르침을 얻은 분’¹⁾이라 하였고, 하천단河千坦(?~1259)은 ‘신라시대 원효공이 우뚝 나타나서 백가의 이쟁異諍을 조화하고 이문을 합하여 돌아감을 함께했다’고 하였다.²⁾ 무엇보다 고려 숙종肅宗 6년(101년)에는 원효의 성덕을 기리는 ‘대성화

1) 大覺國師文集 卷16(韓國佛教全書 卷4), 「祭芬皇寺曉聖文」, 555a. “唯我海東菩薩融明性相 隱括古今 和百家異諍之端 得一代至公之論.” 원효의 명성이 시간이 흐르며 점차 역사에 묻혀 가던 중, 한국 불교사에 원효를 다시 和諍의 大聖으로 위치시킨 인물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다.

2) 하천단, 해동종승통관고, 동문선 권27.

정국사大聖和靜國師'라는 칭호가 내려졌는데,³⁾ 이는 원효 사후 고려시대까지 그의 사상의 특징이 화쟁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화쟁을 주제로 한 독립된 저술인 『십문화쟁론』은 '원효사상의 총결산'⁴⁾으로 언급될 만큼 주요저작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는 이 『십문화쟁론』을 통해 다양한 불교계 이설異說을 모아 십문으로 분류하여 각 쟁론의 차이점을 화회함으로써 일승불교를 지향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화쟁이란 다양한 주장들 이견[異說異評]들을 화회시키는 원리이자 방법론이다. 이 화쟁이 원효사상을 관통하는 핵심코드이자 다른 사상가들과 구분되는 특성으로, 그의 논서에는 '이사소설二師所說 개유도리皆有道理'과 같은 표현이 자주 서술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원효의 사상과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화쟁의 성격을 두고 교리적 측면은 물론 당시 사회상의 화회라는 측면까지 각도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조망해보면, 화쟁은 이론적으로 논할 경우 모든 불교적 쟁론을 회통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⁵⁾ 현실에서는 진속불이의 무애행을 실현하는 근거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원효가 무애무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 『화엄경』의 이 계송의 '일체무애'는 곧 일체 동이同異와 쟁론의 화해는 물론 현실의 일체 차별의 화해를 의미한다.

3) 고려사 권11, 숙종6년8월 기사. 靜은 '諍'의 誤字로 인정되어 왔음.

4) 김선근, 「원효 화쟁논리 소고」, 『동국대학교경주대학논문집』 2(경주: 동국대학교, 1983), 4쪽. 조명기는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1962)를 통해 “元曉의 근본사상은 和諍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불교학자 가마다 시게오[鎌田茂雄]도 「七世紀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元曉の位置」, 『元曉聖師の哲學世界』(大韓傳統佛敎研究院, 1989) p.671에서 “원효가 목표하였던 것은 화쟁에 의한 불국도의 건설이며, 원효의 방대한 저술에 그 이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였다.

5) 고영섭, 「원효의 십문화쟁론-핵심은一心」, 『교수신문』(2004.4.12자). “요컨대, 元曉 사상의 버리로 평가되는 ‘一心’은 결국은 ‘無尋’로 귀결된다. 이 一心과 無尋을 매개하는 ‘和會’는 『涅槃宗要』에 따르면 和諍會通의 약칭이다. 즉 和諍은 다양한 異諍을 조화시키고, 會通은 이치에 맞게 會通시키고(如理會通) 진실 그대로 和會한다(如實和會)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각기 다른 경문을 소통하고(通文異) 풀이하여(解) 佛說敎義의 뜻이 같음을 풀이하여(會義同) 밝히는 것이다.”

『십문화쟁론』이 모든 쟁론의 화해를 위한 의도로 저술한 이론적 차원의 논서라면⁶⁾, ‘무애무’는 이와 같은 원효의 귀일심의 화쟁논리를 현실적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고안해 낸 ‘화쟁의 실천적 수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 그리고 『십문화쟁론』에는 진과 속의 화쟁, 공과 유의 화쟁 등 일체 차별적 요소의 대립을 화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원효가 창안한 무애무의 근저에 내재된 사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참고로 하여 『십문화쟁론』의 십문⁸⁾에 내용에 근거하여 무애무 재현을 위한 무보를 도안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아래 먼저 십문의 각 문의 요지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 각문

- 6) 원효는 阿含敎義부터 華嚴敎義에 이르기까지 당시까지 논의되던 온갖 다양한 주장들을 열 가지로 묶어 和諍논리에 입각하여 하나하나 和會會通하며 논파한다. 空과 有, 人과 法, 眞과 俗, 一과 二, 報身과 化身, 無性과 有性, 一乘과 三乘, 煩惱障과 所知障 등 이항대립의 명제를 損減增益相違戲論 또는 然非然亦然亦非然非不然而의 四諍(四句)의 잣대를 통해 하나한 정리해 간다. 元曉는 여기에서 어느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하나씩 수용하며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에 자신의 견해를 명료하게 밝힌다. 고영섭,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위대한 한국인1』 (서울: 한길사, 2001), 62~63쪽.
- 7) 즉 『십문화쟁론』을 비롯한 원효의 방대한 저술활동은 그의 사상적인 깊이를 가능하게 하고, 그의 현실에서의 무애무는 대중적-실천적 면모라는 두 가지 덕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애무의 가치를 논한 근래의 연구로는 조경아, 『무애무의 기원과 변천과정』, 『온지논총』 13(서울: 온지학회, 2005); 김도각, 『원효 무애춤 -동작명상치료의 현재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3(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2007); 최재목손지혜, 『원효의 무애무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남북문화예술연구』 4(남북문화예술학회, 2009), 그리고 줄고 채한숙, 『무애무 연행의 史的 개괄』, 『동북아시아문화연구』 25(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채한숙, 『국립국악원의 무애무 재현에 대하여』, 『국학연구』 19(한국국학진흥원, 2011); 蔡漢淑孫知慧, 『元曉의無尋舞と空也の踊躍念仏の關聯性について』, 『일본문화연구』 38(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채한숙, 『종래의 무애무 연구 및 무애무애무 개념에 대하여』, 『유학연구』 24(충남대유학연구소, 2011)을 들 수 있다.
- 8) ‘十門’에 대하여 조명기는 『元曉宗師의 十門和諍論 研究』(1937)에서 ‘十’이라는 수에 대하여 복수의 의미로 해석하며 『和白家之二諍 合二門之同歸』라는 文句가 和諍 二字의 출처이며, 十門和諍論의 主旨이다. 十門의 十은 복수의 多를 포함이요 일정한 수량을 지시함이 아니다. 고로 百家나 十門이나 同意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명기, 『元曉宗師의 十門和諍論 研究』, 『금강저』 22(조선불교동경유학학회, 1937), 31쪽, 그러나 이같은 견해와 달리 이종익은 十門은 和諍의 대상인 열 가지의 구체적 주제로 이해하고 十門을 제시하였다.

의 구성에 맞는 무보를 도안하고자 한다.⁹⁾

2. 『십문화쟁론』의 십문에 대하여

『십문화쟁론』은 산실되어 전체 내용은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고, 일부 단간斷簡¹⁰⁾과 원효의 논서에 인용된 내용들로 보완하여 부분적으로 내용을 추정 파악할 수 있다. 1937년 해인사의 경판經板들 사이에서 『십문화쟁론』의 판목 일부(卷上の 9-10-15-16)가 발견되었으며,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판독재구성이 시도되기도 하였다.¹¹⁾ 이종익·이만용·김운학 등은 원효의 다른 저술들에서 화쟁에 관한 논의를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10가지 화쟁문을 재구성하여 복원하였다.

현존하는 『십문화쟁론』의 단편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십문화쟁론』의 잔간의 ①공유이집화쟁문空有二執和諍門, ②불성유무화쟁문佛性有無和諍門, ③인법이집화쟁문人法二執和諍門의 삼문三門이다. 그리고 재구성한 문 가운데 원효

- 9) 『십문화쟁론』을 택한 주요한 이유는, 원효의 다른 저서들에 비해 『십문화쟁론』은 ‘십문’이라는 명확한 구성이 있어 각 장마다의 논지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무용이라는 시공간 예술의 무보를 도안하고 기승전결을 구분 적용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0) 현존하는 십문화쟁론의 단편은 1937년 해인사 대장경 인출시에 발견되었고, 1943년 효당 최범술에 의해 복원되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최범술, 『십문화쟁론 복원을 위한 모집자료』, 『원효연구논총』(국도통일원, 1987)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11)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의 국간장경판과 해인사 사간장경판이 있다. 이 사간장 가운데 『십문화쟁론』 잔간이 있어 1937년 발견되었다. 당년 고려대장경을 2부 인간 할 적에 국간장 이외에 사간장경도 인간정리하게 되어 화쟁론 잔간 제9-10-15-16의 4매도 발견한 것이다. 화쟁십문 중 제9-10, 2면에는 공유쟁론에 대한 화합이 설해져 있고, 제15-16, 2면에는 유성 무성의 성불의 쟁론에 대한 화합이 설해져 있다. 이것을故 이종의 박사는 ‘공유이집화쟁문 유성무성화쟁문’이라 명명했다. 이 밖에 최범술이 불완전한 판본을 복원한 바 있는데 인법이집, 아법이공에 대한 화쟁론이다. 자세한 것은 ‘불교신문’ 2623호(5월 15일자) - “원효성사의 대표작은 『십문화쟁론』이다” 원효성사열반1324주기특별기고를 참조.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는 ④삼승일승화쟁문三乘一乘和諍門, ⑤삼성의화쟁문三性異義和諍門, ⑥이장의화쟁문二障異義和諍門, ⑦불성의화쟁문佛性異義和諍門을 들 수 있고, 연구자들 간에 불신의화쟁문佛身一義和諍門과 법화이신法化異身·보화이신화쟁문報化異身和諍門 및 삼신이집화쟁문三身異執和諍門 등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이 같은 화쟁문을 합하여 편의상 ⑧불신의화쟁문佛身異義和諍門이라 한다면, 모두 팔문八門의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⑨진속이집화쟁문眞俗異執和諍門과 ⑩열반이집화쟁문涅槃異執和諍門을 추가하여 10가지 십문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 현존하는 『십문화쟁』의 단편과 원효연구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추정한 『십문화쟁론』의 십문의 각 문의 근거 문헌과 종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²⁾

〈표1〉 『십문화쟁론』 복원 근거문헌¹³⁾

1. 공유이집화쟁문	}	『십문화쟁론』 간간
2. 불성유무화쟁문		
3. 인법이집화쟁문		
4. 열반이의화쟁문		『기신론동이략집』, 『열반경종요』
5. 진속이집화쟁문		『원종문류』 화쟁문
6. 삼성의화쟁문		『기신론해동별기』
7. 불성의화쟁문		『열반경종요』
8. 불신의화쟁문		『기신론동이략집』, 『열반경종요』
9. 이장의화쟁문		『이장의』
10. 삼승일승화쟁문		『법화경종요』

12) 아래 십문의 내용은 이종익, 『원효의 근본사상』, 『동방사상개인논문집』 1(동방사상연구원, 1977); 김운학, 『원효의 화쟁사상』, 『불교학보』 15(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78); 이만용, 『원효의 사상』(정명사, 1983); 김선근, 『원효의 화쟁논리 소고』, 『동국대논문집』 2(동국대 경주대학, 1983); 오법안, 『원효의 화쟁사상연구』(홍법원, 1989); 이채연, 『원효의 화쟁론에 대하여』(조선대 석사학위논문, 1991)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정리하였음.

13) 이종익, 위의 논문, 238쪽 참고.

1) 삼승일승화쟁문

이 문門의 주지主旨는 <삼승과 일승의 화쟁>이다. 원효의 화쟁사상과 『십문화쟁론』의 가장 주요한 대의가 바로 이 법화일승法華一乘이 모든 삼승교를 회통한다는 『법화경』의 회삼귀일會三歸一사상이다. 일승¹⁴⁾이란 불교의 진교眞敎는 오직 하나로 그 교에 의해 모두 평등하게 불타가 된다고 설하는 교이며, 삼승이란 중생의 성질이나 능력에 응하여 성문·연각·보살¹⁵⁾에 고유한 3종의 깨달음의 길이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승’은 생사고해에 미혹된 중생을 싣고 깨달음의 경지로 운반하는 탈 것이라는 의미이다.¹⁶⁾ 원효는 삼승즉일불승무량승즉일승을 천명하며 백천경론이 다 일승으로 통하는 동일불승이며, 오중성인五種性人이 다 같이 일승을 타고 오르는 화쟁사상의 원리임을 주장하였다.¹⁷⁾

2) 불성유무화쟁문

이 문의 주지는 <불성의 보편성에 대한 논증>이다. 법상宗에서는 『입능가경』·『해심밀경』·『유가사지론』·『성유식론』 등에서 설한 “본디 해탈의 인因이 없는 천제關提¹⁸⁾는 성불할 수 없다.”는 교의를 신봉하였다. 그러나 『열반경』 권27 「사

14) 일승이란 말은 『법화경』 「방편품」에 ‘唯有一乘法無二亦無三’이라고 하여, 이승이라든가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화엄경』 「명난품」이나 「승만경」 「일승장」에도 일승에 의해 불타가 되는 것을 설한다. 이 일승은 불승·일불승·일승교·일승구경교·일승법·일도라고 하고, 바다에 비유해서 ‘一乘海’라고도 한다.

15) 삼승: ①聲聞乘은 사성제의 교법을 듣고 이치를 깨달아 아라한 성자가 되는 것, ②緣覺乘은 12연기를 스스로 깨달아 벽지불의 성위에 오른 것, ③菩薩乘은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자신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함으로써 성불하게 되는 것이다.

16) 『법화경』 「비유품」 제삼에서는 ‘三車火宅’의 비유를 인용하여 “부처의 본좌는 일불승을 나타내는 것이며, 삼승은 일불승에 유인하는 방편이다.”고 밝혀져 있다. 결국 성문·연각·보살의 삼승은 하나의 일불승 안으로 담겨진다는 의미이다.

17) 원효, 『법화경중요』 (『한국불교전서』 1책), 488b. “如來說三乘者 是地差別 非乘差別 說人差別 非乘差別.” 참고.

18) 일천제는 icchantika의 음사로, ‘단선근, 신불구족’이라고 번역한다. 기본적인 의미는 ‘성불할

자후보살품)에는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며, 내지 일천제도 불성이 있다. 그러므로 필경 성불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일천제의 성불에 가불가不可에 대한 쟁론이 지속되어 왔다.¹⁹⁾ 이에 대하여 원효는 『십문화쟁론』 잔문殘文에서 무성론자無性論者の 무성불설에 대하여 “이는 여래가 단선근인斷善根人을 깊이 경계하기 위한 대비방편으로 법상계의 경에서 ‘무성천체無性闡提는 성불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최후의 요의경에서는 단선근중생斷善根衆生도 필경 회심하여 선근을 심으면 다 성불한다. 그러므로 무성론과 개유불성설이 서로 결정상위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며 양설을 회통하였다.²⁰⁾

3) 불성이의화쟁문

이 문의 주지는 <불성이에 대한 다양한 이견의 포용>이다. 원효는 『열반경종요』에서 불성21)의 진실의眞實義를 규명하며 6문(出體·因果·見性·有無·三世·

가능성이 없는 중생’을 의미한다. 이 일천제는 부처조차 구제할 수 없다고 하여 성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 신심이 없고 구제불능한 일천제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 논쟁이 되기도 하였다.

- 19) 법상종에서는 중생의 본성에는 각각 차별이 있다고 하는 이른바 오성각별을 주장하고 있어서 ‘一切衆生 悉有佛性’을 설하는 『열반경』 사상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한때 원효가 입장을 계획하게 되는 이유를 제공하였던 신유식 번역과 소개에 힘썼던 당의 현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 20) 십문을 구분함에 있어 이종의 등은 「五性差別和諍門」을 두기도 하는데, 이 「오성차별화쟁문」은 「무성유성화쟁문」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오성차별화쟁문」의 주요 내용은 <오성의 成不成에 대한 논의의 화해>이다. 오종상·오승종성이란, ‘聲聞定性緣覺定性如來定性不定種性無性’을 말한다. 定性이란 決定性으로 변개할 수 없어 聲聞·獨覺·如來의 定性은 결정코 聲聞·獨覺·如來가 될 것이고, 그 不定性は 聲聞·獨覺도 佛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無性は 영원히 성불의 중성이 없다’는 교의이다. 그러나 『法華經』·『涅槃經』 등에는 定性·不定性·무성중생 모두 성불한다고 하였고, 元曉는 이 교의에 대하여 무성중생은 없다고 천체도 성불한다고 하였다. 이 五性成佛義에 대해 『法華經宗要』에는 三界所有 四生衆生이 다 작불하며, 五性差別이니 成不成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통하였다.
- 21) 대승불교의 이론적 근거이자 인간과 우주의 본체로서의 心性·法性·佛性에 대해, 唯識에서는 ‘萬法唯識’을, 『涅槃經』에는 ‘一切衆生悉有佛性’을, 『華嚴經』에는 ‘三界唯心’이라고 한다.

會通門)으로 구분하였다. 원효는 출체문에서는 불성의에 대한 많은 설을 주요 6의(6師論)²²⁾로 요약하고, 이 6사설 대해 “제설諸論이 모두 옳고 모두 그르다. 왜냐하면 불성佛性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며, 긍정과 부정을 통해 “제설을 통해보면 각기 일리가 있지만 변집偏執하면 안된다.”고 하며 “육사설을 다 합해도 불성실체佛性實體는 미진하다”고 하였다.²³⁾ 그리고 인과문因果門에서 삼세문三世門까지는 불성의 인과因果와 부사의한 공덕묘용功德妙用을 밝히고, 마지막 회통문會通門에서는 불성의佛性義를 의류義類로 상섭相攝한 오종五種(① 性淨門 ② 隨染門 ③ 現果佛性 ④ 當果佛性 ⑤ 非因果佛性)을 제시하였다.

4) 불신이의화쟁문

이 문의 주지는 <불佛의 상주론과 단멸론의 화쟁>이다. 원효는 불신佛身(法身, 報身, 化身)에 대한 경론의 이설을 화합했다. 원효는 『열반경종요』의 화쟁문에서 “논쟁이 다단하지만 치우쳐 법신사우法身常主 화신기멸化身起滅이라는 데 이쟁異諍을 일으킨다. 이 이신이설二身異設이 부동不同하지만 오직 보신報身에서 이집二執을 일으킨다. 그 쟁론은 상주와 무상이 그것이다”²⁴⁾고 하였다. 원효는 상과 무상에 모두 도리가 있다고 하며 이문二門을 열어 회통하였는데, 견등의

22) 佛性の六說: ①白馬寺 愛法師의 道生公說: 當來佛果, ②莊嚴寺 僧旻法師: 現有衆生, ③光宅寺 法雲法師: 衆生の心性, ④梁武帝 蕭然天子設: 心神, ⑤新師(玄奘): 阿賴耶識의 法爾種子, ⑥眞諦三藏說: 阿摩羅識의 眞如解性. 元曉, 『涅槃經宗要』 권34, 871b(경인문화사판, 26b). 元曉는 『涅槃經宗要』에서 佛性に 대한 六師의 異義를 열거하고 있다. “此諸師說 皆是皆非 所以然者 佛性 非然 非不然故. 以非然故 諸說 皆非 非不然故 諸說 皆是. 是旨云何 六師所說 不出二道, 初一 指於當有之果, 後五 同據今有之因. 此後五中 亦有二倒, 後一 在於眞諦, 前四 隨於俗諦.”라고 六師의 異說들을 열거하고는 그 一을 偏執하면 다 그르며, 그 六을 통해보면 각각 모두 일리가 있다고 會通하였다.

23) 元曉, 『涅槃經宗要』 권38, 247b.

24) 元曉, 『法華經宗要』 권38, 245c.

『대승기신론동이익집』의 내용을 보면 “구룡(=元曉) 화쟁론에 이르기를 불지 만덕佛地萬德이 대략 이문에 있으니, 만일 종인연생기문從因生起門에서 보불공덕報佛功德은 잘나생멸剋那生滅한다함은 초사소설初師所說이 또한 이 문門을 얻었고, 식연귀원문息然歸源門에서 보면 보불공덕報佛功德은 응연상주凝然常主한다 함은 후사소설後師所說이 또한 이 문門을 얻었다. 일일덕—德이 이문이 있으며 이문이 서로 통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²⁵⁾라고 수록하고 있어, 원효가 불신의 상무상常無常 이설을 화쟁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⁶⁾

5) 열반의의화쟁문

이 문의 주지는 <열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이의의 대한 회통>이다. 즉 원효는 『열반경종요』에서 열반문涅槃門과 불성문佛性門의 이문二門 중 열반문, 그리고 열반문 중의 하나인 체상문體相門에서는 먼저 그 성性を 밝히면서 이설異說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진여의 바른 지혜가 바로 열반이다’, 또 하나는 ‘과과의 지위에서 생기는 만덕萬德은 본각本覺이나 시각始覺을 불문하고 모두 묶어서 하나의 큰 열반의 체體로 삼는다’는 이 열반의 체성體性에 대한 이설二說을 옮긴 다음에 원효는 “그러한 두 설說에는 모두 도리가 있다. 그 까닭은 열반과 보리菩提는 공통됨이 있고 구별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두 견해를 화해하고 있다.²⁷⁾ 다른 열반에 대한 이설異說인 열반은 진실불공眞實不空이고 생사生死的 공췌이라는 설과 열반과 생사 모두 허망개공虛妄皆空이라는 설에 대해, 전자

25) 견등, 『대승기신론동이익집』(『속장경』 71) 이외에도 견등의 『대승기신론동이익집』에 “和評論云, 丘龍和合 報身 化身 經論異說云 如同性經說 穢土成佛 名義化身 穢土成佛 名爲報身.”라고 수록되었다.

26) 『속장경』 71套, 4冊 368丁(바로 앞 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래는 무상이 아니므로 항상 삼제를 여의고 상주가 아니므로 항상 생멸이 있다고 한 바, 상과 무상이 다 도리가 있으며…(후략).”

27) 원효, 『법화경종요』(『한국불교전서』 1책), p.528上-中.

는 상대문相對門에 후자는 상대무자성문相對無自性門에 배대하고 양설兩說이 모두 경지經旨에 맞다고 회통하였다.

6) 아법이공화쟁문

이 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아법我法の 이집二執과 이공二空에 대한 쟁점 회통>이다. 이 내용은 『이장의』의 결미문結尾文을 근거로 하여 불과 증득佛果證得의 장애가 되는 번뇌장煩惱障의 아집我執과 소지장所智障의 법집法執의 단멸斷滅을 논한 것이다. 원효 『이장의』에는 아법의 유무有無를 논하는 것에 대해, 상대의 근성에 따라 아를 고집하는 외도에게는 아는 없고 단지 온법蘊法만 있다 하고, 이승二乘의 아공법유我空法有의 집착에 대해서는 아유온공我有蘊空을 설하고, 보살의 일향공집一向空執에 대해서는 아법구유我法具有를, 법상교法相教에서 아법에 집착하며 아법개공我法皆空을 설한다고 하였다. 원효는 아법의 유무가 제등齊等하니 이것이 구경각究竟義이며, 보통 유무를 논하는 것은 수의실隋義說이라고 하였다.

7) 이장의의화쟁문

이 문의 주지는 <번뇌소지 장애의 쟁점에 대한 화쟁>이다. 『이장의二障義』는 원효가 깨달음에 대한 장애로서 번뇌소지의 이장과 그 치단治斷을 상세히 논구한 독창적인 저술이다.²⁸⁾ 번뇌론은 『구사론』 『유가사지론』 등의 대소승 논서에서 많이 다루어졌지만, 그 이론들을 한데 묶어서 독립시킨 것은 『이장의』가 처음이다.²⁹⁾ 원효는 이장을 이문二門으로 구분하여 ① 현료문顯了門은 번뇌장(惑障)

28) 그 서술구조는 「釋名儀:名儀를 해석함」·「出體相:體相을 논함」·「辨功能:障의 功能을 밝힘」·「攝諸門:諸門의 相攝을 밝힘」·「明治斷:治斷을 논함」·「摠決擇:총결론」의 六門으로 구성되며, 이 중 出體相辨功能에서는 다시 顯了隱密門으로 나누어 설명되는 것이 특징이다.

과 소지장으로 ② 은밀문隱密門은 번뇌애과 지애로 설명한다. 이 현료문의 이장은 아법이공我法二空을 장애하는 이집二執이며, 은밀문의 이애는 진속이지眞俗二智를 장애하는 번뇌체계이다. 이와 같은 이문의 설정을 통하여 원효는 법상가의 이장설과 기신론의 이장설을 현료-은밀 이문으로 회통하고, 오랫동안 성性상相 이가二家の 쟁점이었던 논의를 화해한 것이다.³⁰⁾

8) 삼성이의화쟁문

이 문의 주지는 <유식 삼성三性的 이론에 대한 화쟁>이다. 원효는 그의 『대승기신론별기』에서 유식교의의 변계소집성·의타기성·원성실성의 삼성³¹⁾에 대해, “삼성의 불일불이의不一不異義를 이해하면 백가쟁문이 무불화해”³²⁾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일법계 전체의 진여의 체를 원성실성(진실성)·의타기성(의타성)·변계소집성(분별성)이라는 삼성으로 밝히고, 이 삼성이 서로 상대화되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회통한다. 『대승기신론』은 법상가의 유상有相과 중관파의 무상無相을 일법계총상이라 하였고, 진여생멸의 원리를 회통하여 성性상相 원용의 도리로 귀일시켰다. 원효는 이러한 이문일심의 귀일의 원리를 드러낸 『기신론』에 대해 이 논문 ‘群諍의 評主’라고 하며,³³⁾이를 바탕으로

29) 이것은 新舊의 번뇌에 관한 설들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석길암, 「이장의 사상사적 재고」, 『한국불교학』 28(한국불교학회, 2001), 380쪽 참고.

30) 그리고 원효는 「이장의」에서 번뇌의 단멸에 있어 범부-이승-보살-부처의 경지를 달리하고 차별을 두어 설명하나(=染淨非一門), 치단설의 마지막에는 다시 「染淨無障礙門(=染淨通相門)」을 설하여 모두 회통한다. 이 染淨無障礙門에 의하면 障礙와 道는 不二이다.

31) 유식교의 삼성은 世親의 『唯識三十頌』에 근거하는 것으로, 邊計는 六識境界의 虛妄分別이며, 依他는 아뢰아식이 分別緣에 의해 心境相對의 현상계를 緣起한 것이며, 圓成은 원만히 성취된 진실한 自性(원만·성취·진실)이라는 뜻이다.

32) 원효, 『대승기신론별기』 권44, 202b. “三性不一不異義者는 百家之異諍이 無所不和也.”

33) 『기신론소·별기』에서 원효가 三性異義和諍을 직접 해설한 것은 보이지 않으나, 중관파는 모든 相을 쳐부수기만 하고 세우지 못하며 유가법상파는 相을 세우기만 하고 쳐버릴 줄 모르는 데, 『기신론』은 다 세우고 도리어 쳐버리고 깨뜨리고 허락한다고 말하고 있다.

로 공宥·유有·성性·상相의 융통무애한 이론을 밝히고 있다.

9) 공유이집화쟁문

이 문의 주지는 <제법의 본성에 대한 공과 유의 이견 화해>이다. 공유의 문제는 불교 실재론의 주요 담론이었다. 근본불교의 제법무아제행무상, 소송부파의 아법구유·아공법유·현법실유의 주장, 대승불교의 『반야경』 계통의 일체개공, 중관파의 심경구공·心境具空과 유가파의 속공진유·俗空眞有, 특히 반야삼론계의 공제일의空第一義사상과 유식법상계의 유有사상은 서로 대립하여 천여 년 간 논쟁이 지속되었다. 원효는 『십문화쟁론』에서 이러한 공유空有의 대립을 화해和解하고자 하였으며, 자성은 본래 허공虛空과 같은데 변계소집에 의하여 현현한 제법諸法은 허공에 수용한 색상色相과 같으며, 보살이 망상분별을 여의면 청정성공이 드러난다고 하여 회통하였다.³⁴⁾

10) 진속이집화쟁문

이 문의 주지는 <진체와 속체의 회통>이다. 즉 공유의 이론異論과 함께 이제二諦, 즉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에 대한 이론을 화쟁하는 것이다. 원효의 학문적 이론이자 종교적 실천의 기초인 염정부이와 진속일어는 진리의 근원인 일심一心의 통찰에서 나온다.³⁵⁾ 그리고 이전까지 종교계에서 동動보다는 정淨을 중시한 것,

34) 이종의, 「원효의 『십문화쟁론』 연구, 『원효』(서울:예문서원, 2002), 246쪽. 『십문화쟁론』 2권 중의 상권의 9·10·15·16장의 4매가 殘有한 바 9·10장의 2매는 空有評論이 화합한 것이었으니, 아마 十門 중 2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有所許有不異於空。故雖如前而非增益。假許是有、實非墮有。此所許有、非不墮有。故雖如後而非損減。前說實是有者、是不異空之有。後說不墮有者、不墮異空之有。是故俱許而不相違。由非不然、故得俱許而亦非然、故俱不許。此之非然、不異於然。喻如其有、不異於空。是故雖俱不許而亦不失本宗。是故四句竝立而離諸過失也。”

35) 원효학연구원(<http://www.wonhyo.or.kr/biography.html>) ‘생애와 저술’ 참고(검색일자: 2009.07.21.).

범부적인 오염과 불보살적인 정淨을 차별해 온 것에 대한 역발상적 견해를 밝힌다. 진眞을 중시하고 속俗을 경시하던 것에 대해 원효는 무사지공無私至公한 경지에서는 이분二分적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염정染淨이 융합하므로 진속이 평등하다는 견해를 펼쳤다.³⁶⁾ 그리고 융진속融眞俗이 원효의 현실관의 기본 입장임은 『금강삼매경론』에 일심의 진속무애를 언급하는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⁷⁾

이상의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십문十門의 중심내용

十 門	내 용
삼승일승화쟁문	〈삼승과 일승의 화쟁〉: 『십문화쟁론』의 대의, 회삼귀일 법화일승이 모든 삼승교 회통, 제종문의 회통 삼승(성문·연각·보살)즉일불승, 무량승즉일승
불성유무화쟁문	불성의 보편성에 대한 논증·〈무성·유성 성불논의의 회통〉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라는 설에 기초. 무성중생의 불성불을 주장하는 이설과의 화쟁.
불성이의화쟁문	〈불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 화쟁〉 불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을 회통. 원효는 『열반경종요』에서 불성에 대한 육사의 이설을 열거하고, 변집하면 다 그르치고 통하면 모두 일리가 있다고 회통하였음.

원효는 『대승기신론별기』를 통해 진리 즉 일심을 태허와 거해에 비유하고, 무사 지공하다고 밝힌다. 원효, 『대승기신론별기』(『한국불교전서』 1책). “其體也 曠兮其若太虛而無其私焉 蕩兮其若巨海而有至公焉 有至公故 動靜隨成 無其私故 染淨斯融 染淨融故 眞俗平等 動靜成故 昇降參差 昇降差故 感應路通 眞俗平等 思議路絕 思議絕故 體之者乘影響而無方 感應通故 祈之者超名相而有歸 所乘影響 非形非說 既超名相 何超何歸 是謂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也.”

36) 손지혜, 『원효 무애사상의 예술적 구현 -무애무를 중심으로』(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22쪽.

37) 원효, 『금강삼매경론』(『한국불교전서』 1책, 604쪽). “一心의 경지는 有라 함과 無라 함을 떠난 홀로 초출한 자리이며, 三空의 경지는 眞과 俗을 융합한 담연한 자리이다…(後略)(一心之源 離有無而獨淨 三空之海 融眞俗而湛然…(後略)).”

十 門	내 용
불신이의화쟁문	〈불의 상주론과 단멸론의 화쟁〉 불신(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경논의 이설을 화합. 법신상주화신기멸의 이견 등 불의 상과 무상에 대한 대립 화해
열반이집화쟁문	〈열반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포용(긍정과 부정의 화쟁)〉 열반에 대한 제종문의 이론을 화쟁시켜 열반의 올바른 뜻을 드러냄.
인법이집화쟁문	〈인법에 있어서의 공유의 화해〉 인계와 법계에 대한 불교계의 쟁점에 대해 중도의 원리로써 논쟁을 화쟁.
이장이의화쟁문	〈변뇌·소지 이장 논의의 이설 화쟁〉 원효는 이장의를 지어서 (소지장 : 지장)과 (변뇌장 : 후장)에 대한 여러 주장을 은밀의와 현묘의로 판정함으로써 해결
삼성이의화쟁문	〈유식의 삼성 논의의 화쟁〉 번계소집성·의타기성·원성실성의 삼성에 대한 이론을 화쟁.
공유이집화쟁문	〈공과 유의 화쟁〉 인도의 중관학파·유가학파, 중국의 삼론종과 자은법상종의 주요쟁점이 되어온 공과 유의 대립을 화해.
진속이집화쟁문	〈진체와 속체의 화쟁〉 이제二諦, 즉 진체와 속체에 대한 이론을 화쟁. 귀일심의 경지에서 진속의 평등원융함을 설함.

3. 『십문화쟁론』에 근거한 무애무 가상 무보 도안 작성표

앞서 논의한 『십문화쟁론』 십문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무애무 가상 무보를 도안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무애무 재현에 필요한 참고 요소를 표로 작성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음 세 종목 ‘원효 당시의 무애무, 향약정재 무애무, 일본의 공야염불’에 담긴 요소를 참고하고자 한다. 표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① 『십문화쟁론』의 십문의 핵심 내용과 상징을 추출하고 ② 무애무의 문헌 기록을 참고하여 십문의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을 배치·구성하고 ③ 일본의 공야염불空也念佛³⁶⁾의 연행양

상과 형태를 고려하고 ④향악정재로서 재현되고 있는 무애무의 궁중무로서의 요소³⁹⁾와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요소 등을 참고하고 ⑤비고: 앞의 구성들을 토대로 논자가 구상하는 무애무 가상 무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 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무애무·무애정재·공야염불의 각 구성요소를 간략히 정리하겠다.

1) 원효 당시의 무애무

〈표3〉 무애무의 구성 요소

요 소	무 애 정 재
무 구	호로, 큰 바가지
복 색	속복, 법복
장 소	천촌만락, 논촌, 거리
동 작	호로를 두들기며 진퇴
반 주	호로를 두들김
가 사	나무아미타불(염불)
무 원	원효, 남녀노소불문
대 상	원효, 남녀노소불문
목 적	불교포교
사 상	무애·정토·일심·화쟁



- 38) 공야염불을 참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야는 원효와 유사한 일본의 대표적인 민중승이며 포교를 목적으로 예술적인 가무의 양식을 고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공야염불은 쇠호로를 두들기며, 승려들이 직접 연행하며, 염불을 외는 점 등 원효의 무애무의 원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 기인한다.
- 39) 향악정재 무애무를 참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려시대 이후 궁중으로 유입된 무애무는 현재까지 향악정재로 변모되어 전해온 계통이 있으며, 현재 한국국악계에서도 무애무는 일반적으로 정재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정재로 전해지긴 했지만, 호롱박 모양의 무애를 무구로 한 점, 창사에 불교적 가사가 담겨 있었던 점 등, 원효 무애무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으며, 무애무 원형 추정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 정재 무애무

〈표4〉 무애정재의 구성 요소

요 소	무 애 정 재
무 구	무애
복 색	정재복색
장 소	궁중 궁내
동 작	격식화
반 주	궁중악사 연주
가 사	무애사(창사)
무 원	여기·무동
대 상	국형·귀족층
목 적	충·예
사 상	음양오행·유교예악



3) 공야염불

〈표5〉 공야염불의 각 요소

요 소	공야염불 연행내용
무 구	금고·정·태고·표단
복 색	가사 법복
동 작	수미단을 돌며 상·하체를 상하좌우 흔들고 보법을 취한다.
반 주	승려
가 사	염불(モ-ダ ナソマイト)
무 원	승려
대 상	승려·신도
목 적	공야추모·불교의례행사
사 상	불교정토신앙 / 추모공양



앞의 내용을 참고로, 이를 집약하여 상호 대비를 위한 <표 6>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6> 『십문화쟁론』 근거 무애무 가상 무보구상 표⁴⁰⁾

십문화쟁	무애무 ⁴¹⁾	공야염불	무애정재	비 고(재현)
삼승일승 화쟁	기	①의례시작	①②③ 약사등장 인사와 창사 무애2인	▶ 등장과 인사 ▶ 『파한집』 기록 참고 ▶ 상승·일승표현(대형) (무구(목탁·호리박)·의상(법복)·대형(獨舞+3圓))
불성유무 화쟁				▶ 원효가 호로(‘佛性’ 상징)를 똑 같이 나누어 주자 무원들이 모두 가지고 농함.
.....				
불성이의 화쟁	승	②환희용약 동작과 염불 을 천천히 반 복함.	④⑤⑥⑦⑧ ⑨⑩⑪⑫⑬ 협무	▶ 원효가 화엄경 계승을 외우자, 무원들도 따라 외움. (六師說: 6인 잇갈린 대형)
불신이집 화쟁				▶ 모두 호로를 두들기며 천천히 진퇴 동작 반복. (서로 마주보는 대형)
.....				
열반이의 화쟁				▶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참함. (큰 원 대형)

40) 이 표는 십문화쟁론을 기승전결의 구도로 구성하기 위해, 무애무공야염불무애정재의 각각의 내용을 기승전결로 나누어 종합대비하기 용이하도록 작성한 표이다. 그리고 이를 참고로 비고(재현)란에서는 십문화쟁론의 십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필자 가상의 무보를 작성해본 것이다. 여기서 무애무공야염불무애정재의 기승전결 각각의 내용은 십문화쟁론에서 나는 기승전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각각(무애무공야염불무애정재)의 내용으로부터 연행양상을 임의로 기승전결의 전개로 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십문화쟁론 참고 가상무보 제작에 필요한 춤의 시작과 전개 결말의 구성 등에 좋은 참고역할을 하였다.

〈표7〉 기승전결 변화

	기	승	전	결
반주 음악	무반주, 무음	범고반주 느리게	범고반주 빠르게	범고·박
내용 전개	(인사와 등장) 교화의 대의를 밝힘	‘불성’을 깨우쳐 알도록 인도함	번뇌와 집착과 편견의 ‘장애’를 떨쳐냄	(회양과 퇴장) 진속무애 일심이문화쟁
무구	목탁 ▶	호리병		▶바가지
무복	승복(법복)			▶속복(누더기)

4) 가상 무보의 재구성

위 내용을 근거로 재구성한 가상 무보는 다음과 같다. 전개는 기승전결로 나누고 십문을 배당하고자 한다.⁴³⁾

가. 「기」: 삼승일승화쟁문

이 문의 내용은 『십문화쟁문』의 대의大義이다. 원효가 고퍍에 허덕이는 중생들과 성문·연각·보살의 삼승을 모두 수레에 실어 부처의 성불일승成佛一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등장한다. 그 동작과 진행을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은 무반주이며 정靜적이다. 등장과 인사〉

(a) 원효가 승복을 입고 호리병을 들고 허리에는 목탁을 차고 서서히 세 무리(三乘)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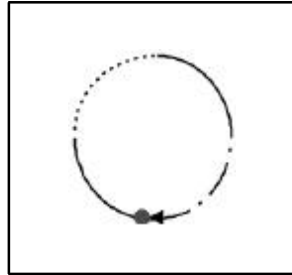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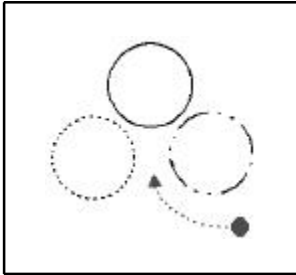
43) 본 장의 사진촬영은 일자: 2012년 3월 13일, 장소: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 무원: 대구시립국악단 한국무용 안무자 채한숙·김순주·박선미·장희정·김세미·공미정·박지희장은성·류지연·곽나연·이은정·주현미가 참여하였다.

44) 삼승은 聲聞乘緣覺乘菩薩乘을 의미한다.

의 둥근 대형의 무원 속으로 등장

- (b) 원효의 인사를 따라 모두 합장
- (c) 원효가 대형의 중심을 빠져 나오며 전진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동작(=教化의 염원을 상징)⁴⁵⁾을 취함
- (d) 세 무리(三乘)의 둥근 대형의 무원들은 서서히 원을 그리며 돌다가, 원효를 따라 돌아 나오며 큰 하나의 원(一乘)을 이룸

〈표8〉 기거 대형(등장과 인사)



① 삼승상징 세 원, 원효 등장	② 세 원이 풀려 일원 이룸	③ 일승상징 하나의 큰 원
		

45) 참고로, 실제 불교 작법무의 춤사위에 나타나는 상징적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①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동작은 '教化', ②원을 그리며 주위를 빙빙 도는 동작은 '圓滿' ③손을 폼다가 모았다가 하는 동작은 '慈悲', ④몸을 굽혔다가 폼다가 하는 동작은 '歸依' 를 상징한다. 홍운식·정병호, 『영산재』, 『중요문화재조사보고서』 50(문화재관리국, 1987), 231 ~234쪽.

나. <승>- I : 불성유무불성이의화쟁문

이 문의 내용은 『십문화쟁론』의 <불성유무불성이의>의 화쟁문이다. 이 두 문의 내용은 ‘불성’에 대한 이견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즉 온갖 차별적인 유무성 중생, 오종불성⁴⁶⁾ 할 것 없이 궁극에서는 누구나 성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회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에서는 차별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누구나 평등하게 불성 갖추고 있음을 깨우쳐 주고자 한다. 아래 그 동작과 진행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반주음악은 법고, 다소 동적인 분위기 조성·전개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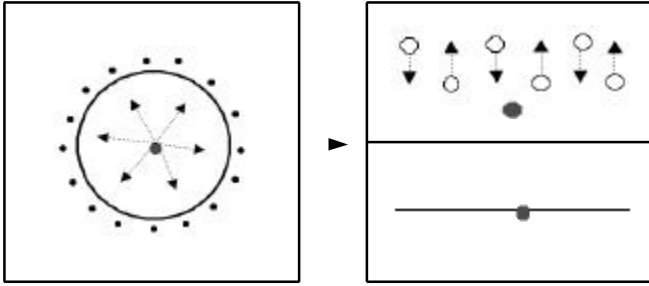
- (a) 원효가 허리춤에서 호로를 빼든다.
- (b) 무원들에게 ‘호로(불성을 상징)’를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동작을 취한다.
- (c) 원효가 호로를 높이 빼들자(중양), 무원들도 똑같이 위로 들고 놓는다.(원)
- (d) 원효가 화엄경 계송⁴⁷⁾을 창한다.
- (e) 무원들도 화엄경 계송(一切無尋人, 一道出生死)을 함께 창하며 일-열을 이룬다(6인의 엇갈린 대형(『열반경종요』의 불성에 대한 六師說⁴⁸⁾을 상징)의 무원들이 원효를 뒤따르며 일-열로 모임(和誦 상징).

46) 五性이란, 오성각별 또는 오종성이라고도 하며, 유식종에서 주장하는 중생의 다섯 가지 타고난 성품이다. ①보살정성: 본래부터 부처가 될 무류종자를 갖춘 중생 ②연각정성: 벽지불이 될 무류종자를 갖춘 중생 ③성문정성: 아라한이 될 무류종자를 갖춘 중생 ④삼승부정성: 두 가지 종자나 세 가지 종자를 갖춘 중생. 이것은 다시 네 가지로 분류된다. ⑤무성유정: 성문·연각·보살의 무류종자는 없고, 다만 오계나 십선계를 닦으므로 인승이나 천승이 될 유류종자를 갖춘 중생.

47) 『삼국유사』, 「원효불기」. “以華嚴經 ‘一切無尋人 一道出生死’ 命名曰無尋.” 무애의 명칭이 비롯된 경전 『화엄경』의 구절에서 유추.

48) 『열반경종요』의 육사설 회통: 『열반경종요』는 원효가 『열반경』의 요지를 조직적으로 해설한 개요서로, 이 저서에서 원효는 불성에 대한 여섯 가지 이론(六師說)을 말한 뒤 경전을 인용하여 모두 회통한다.

〈표9〉 승承-1) 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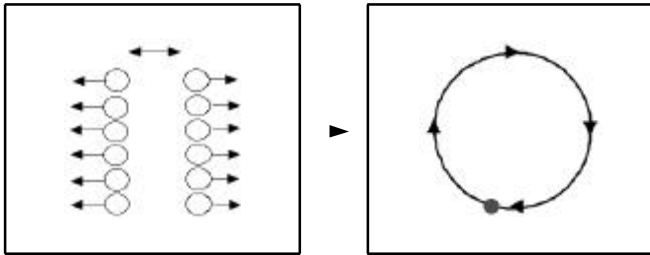


다. 승-Ⅱ: 불신이의 열반이의 화쟁문

이 문의 내용은 불신에 대한 상주·단멸론의 화해와 열반에 대한 제설의 화쟁이다. 불신의 상주론과 단멸론의 화해와 열반의 다양한 정의가 서로 교차하는 것에 대한 포용을 설하는 문이다. 각각의 설이 평행을 이루다가 화쟁하는 것을 상징하는 대열로 교차와 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아래 그 동작과 진행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 (a) 모두 호로를 두들기며 천천히 진퇴하는 동작을 반복한다(서로 마주보는 대형).
- (b) 서로 등지고 마주보는 동작을 반복하다가, 서로 엇갈리는 대형으로 원을 그리기 위해 풀어져 나온다.
- (c) 방글방글 원을 그리며 ‘나무아미타불⁴⁹⁾’을 함께 외운다(큰 원 대형).

〈표10〉 승承-2 대형



① 상주단멸 상징하는 양변	② 양변의 무인들이 교차	③ 양론의 화쟁-큰 원

라. 전-1 : 인법이집·이장이의화쟁문

이 문의 내용은 〈아집과 법집〉의 두 장애를 떨쳐내는 것을 표현한다. 첫째, 『파한집』에 묘사된 동작(양 소매를 휘두르고 세 번씩 다리를 드는)을 재현하고 둘째, 『이장의』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로 구성한다. 『이장의』에는 장애의 비유로 “눈을 가린다”는 표현이 있어⁵⁰⁾ 이를 묘사하도록 하겠다. 아래 동작과 진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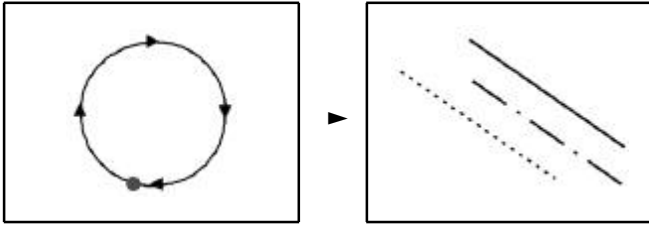
49) 『삼국유사』, 「원효불기」, “以華嚴經 一切無導人 一道出生死 命名曰無導 仍作歌流于世 嘗持此 千村萬落(且歌且舞) 化詠而師 使桑樞倉獼獼猴之輩 (皆識佛陀之號 咸作南無之稱) 曉之化大矣哉.”
 50) “만행이 모두 갖추어지고 세 가지 지혜(=성소작자·묘관찰자·평등성지)를 이미 얻었으나 오직 대원경지를 아직 얻지 못하였을 뿐이니, 여래는 최후의 묘색을 깨끗하게 다스린다. 이장에서 해탈하였기 때문에 맑은 눈을 얻었으나 가장 미세한 무명주지를 아직 여의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약간 어두운 곳에서 색을 보는 것과 같다. 혹장의 습기가 있으나 법공관의 지혜를 직접 장애하지는 않기 때문에 색을 멀리서 보는 것과 같다. 그 지장의 습기는 비록 미약하지만 해안을 가까이에서 가리니, 그 일은 눈 밝은 이가 가벼운 명주로 가리운 것과 같다(『二障義

구상하면 다음과 같다.

〈○반주음악은 법고이며 템포가 빨라져 최고조에 이르는 아주 동動적 분위기〉

- (a) 원효가 양 소매(二障)를 휘두르고 세 번씩 다리를 드는 동작을 반복한다.⁵¹⁾
- (b) 무원들이 둥글게 원효를 따르며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템포 빨라진다).
- (c) 등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한다(원 대형을 유지하며 계속 돈다).
- (d) 무원들이 무명천(장애 상징)을 서서히 펼치는 동작을 취한다.
- (e) 무원들이 원 대형에서 돌아 나와 천을 펼치며 사선 대형을 이룬다.

〈표11〉 전轉 - I 대형



① 삼색 천으로 눈을 가림	② 무명의 정도(三段의 高低)	③ 무명 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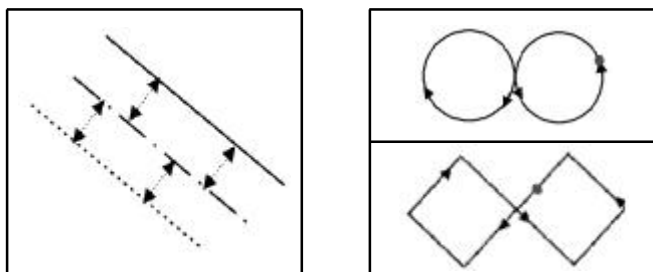
“萬行皆修，三智已得，而唯未得大圓鏡智，如來淨治最後妙色，解脫二障，故得淨眼，未離極微無明住地，是故不異微闇見色。有惑障習，而非親障法空觀智，故如遠見色。其智障氣，雖是微薄，近弊惠眼，事同輕翳。”). 이 부분은 원효가 6유가론의 구절인 “일체의 구경지에 안주하는 보살지와 여래지 등은 어떻게 차별되는가?”에 대한 명주의 비유 구절을 언급하며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51) 『파한집』의 “雙소매를 휘두르는 것은 二障을 끊은 까닭이고, 세 번 다리를 드는 것은 三界을 초월한 까닭이다(揮雙袖所以斷二障，三舉足所以越三界).”에서의 동작 유추.

마. 전-2 : 삼성이의-공유이집화쟁문

이 문의 내용은 <삼성이의-공유이집>의 화쟁문이다. 이 두 문의 내용은 유식의 '삼성(원성실성-의타기성-변계소집성)⁵²⁾'을 회통하고, 궁극적으로는 유가(瑜伽)의 유(有)와 중관(中觀)의 공(空)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통함을 밝히고 있다. 아래 그 동작과 진행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2> 전轉-2대형



① 三性を 표현	② 「파한집」에 나오는 동작	③ 천(무명)은 모두 제거

52) 삼성은 불교에서 일체 세간법의 본질을 세 측면으로 나눈 교설로, 유가유식종 철학의 골격을 이루는 학설이다. 유식삼성은 ①변계소집성, ②의타기성, ③원성실성의 세 가지를 의미한다. ①변계소집성은 분별성의 다른 이름이다. 사물의 궁극적 실체가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생각에 의한 분별과 망상으로 범부가 잘못 집착하여 보는 것을 변계소집성이라 한다. ②의타기성은 인연법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즉 그 일체 모든 것이 자신의 원인만으로는 나기 어렵고 반드시 다른 緣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③원성실성은 원만구경진실의 의미로, 불성법상진여법신 등을 구족한 自性を 말한다. 또한 원성실성이란 의타기성에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원성실성인 것이고, 분별을 일으키면 편계소집이 됨을 뜻하기도 한다.

- (a) 사선의 삼열三性 대형이 각각 색과 질기(변뇌와 장애의 정도)가 다른 무명천을 들고 있다(검장·회색·흰색).
- (b) 흰색천의 무원들은 원형(원성실성), 회색천의 무원들은 서로 맞물림(의타기성). 흰색천의 무원들은 양변을 향해 등지는 이분된 대형(변계소집성 상징).
- (c) 무원들이 서로 엮이고 교차하며, 양 소매를 휘두르는 동작을 빨리하며 무명천을 모두 걷어내 버린다.
- (d)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룬다. 변뇌가 소멸되고 (指月을 상징하는) 동작을 취한다.

바. 결 : 진속이집화쟁문(귀일심원 요익중생을 표현)

이 문의 내용은 원효의 모든 사상의 귀결이자 회향을 의미하는 진속불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삼국유사』의 무애무 기록에는 이 진속불이정신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마지막 문에서 진속이 어우러지는 정신을 춤으로 표현하기 위해, 『삼국유사』의 내용을 위주로 재현하고자 한다. 또한 이 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도 더 반영하고자 한다.

첫째, 공아염불의 하이라이트는 염불의 마지막 날 진혼을 위해 호리박을 깨부수는 의식을 취한다. 둘째, 『삼국유사』에는 ‘요석궁’, ‘파계한 원효가 설총을 낳고’ 등 원효와 왕실(궁궐)과의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두 요소를 참고하여, ①호리박·바가지를 깨부숨을 표현하는 던지는 동작과 ②궁중여기의 무애무를 상징하는 내용을 첨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민·귀족(왕실), 평민·승려, 여기·승려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모습을 묘사하고자 한다. 아래 그 동작과 진행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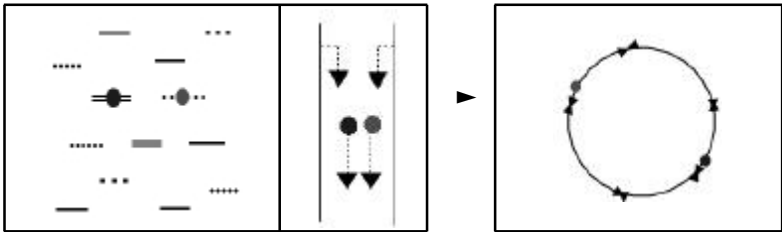
〈○반주음악은 법고, 어우러짐과 회향의 결말과 퇴장〉

- (a) 원효는 속복에 바가지를 들고 호로를 허리에 차고, 뒤의 광대 무리(서민·천민 상징)들은 바가지나 조롱박을 들고, 승려는 목탁, 여기는 정재복에 무애를 들고 나와, 일정한 대형이 아니라 모두 섞여 있다.
- (b) 원효(前1人)와 여기(前1人)이 마주한다(후 대열의 무원들도 마주한다). 여

기들은 창사(“부처님 자비가 아니신가”)를, 원효 및 무리들은 ‘나무아미타불’과 염불을 외다. 상대 상배 하던 무원들은 점차 교차하며 섞여 원을 그린다.

- (c) 원효가 바가지와 호로를 던지는 동작을 취하자, 무원들도 모두 손을 들어 무구를 위로 던진다(해탈을 상징).
- (g) 인사와 퇴장

〈표13〉 결結 대형



위의 무보 도안을 통하여 『십문화쟁론』의 대의와 각 문의 종지를 파악하고 무애무의 사상·예술적 관련요소를 추출하여 기승전결로 동작 및 대형 등을 구상해 보았다.

이 무보의 특징을 요약정리하자면 첫째, 대중교화를 위하여 현실에 직접 뛰어드는 원효의 실제상을 무용과 대형 구성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목탁에서 서민적 도구인 호리병박과 바가지로의 무구 변화 등과 같은 구성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십문화쟁론』을 토대로 한 만큼 화쟁적인 요소를 반영한 무보를 만들고

자 하였다. 즉 무애무와 공야염불과 무애정재의 각 요소들이 지닌 동이점을 무보 작성에 반영하고자 의도한 것 또한 이 같은 목적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원효 당시의 무애무는 문헌 기록의 내용도 소략하고 구성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무이다. 그러나 본 무보에서는 원효의 사상적 특징은 물론 교화 내용을 기승전결의 구도로 구성하여, 인사에서 퇴장까지 다소 정형화된 형태를 갖추고자 하였다.

원효의 사상적 결실이 ‘귀일심원 요익중생’인 만큼 귀‘일심’을 상징하는 원圓대형을 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결계에서는 특히 진속무애화쟁에 중점을 두고, 『삼국유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구성하였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위의 무보 도안을 통하여 『십문화쟁론』의 대의와 각 문의 중지를 파악하고 무애무의 사상·예술적 관련요소를 추출하여 기승전결로 동작 및 대형 등을 구상해 보았다.

이 무보의 특징을 요약정리하자면 첫째, 대중교화를 위하여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 원효의 실재상을 무용과 대형 구성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무복과 무구에 있어서도 수행자를 상징하는 법복에서 속복으로의 무복 변화, 목탁에서 서민적 도구인 호리병박과 바가지로의 무구 변화 등과 같은 구성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십문화쟁론』을 토대로 한 만큼 화쟁적인 요소를 반영한 무보를 만들고자 하였다. 즉 무애무와 공야염불과 무애정재의 각 요소들이 지닌 동이점을 무보 작성에 반영하고자 의도한 것 또한 이 같은 목적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원효 당시의 무애무는 문헌 기록의 내용도 소략하고 구성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무이다. 그러나 본 무보에서는 원효의 사상적 특징은 물론 교화

내용을 기승전결의 구도로 구성하여, 인사에서 퇴장까지 다소 정형화된 형태를 갖추고자 하였다.

원효의 사상적 결실이 ‘귀일십원 요익중생’인 만큼 귀‘일심’을 상징하는 원대형을 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결에서는 특히 진속무애화쟁에 중점을 두고, 『삼국유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구성하였다.

무애무는 오랜 역사와 변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으며, 현재에는 또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창작되어 무대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새로운 무애무 재현에 대한 고려를 근거에 두고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원효의 무애무 창안 당시의 사상을 존중하는 입장을 토대로 새로운 재현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고자 한 것이다. 즉 무애무는 불교포교와 민중적 목적의 무애무와 궁중에 유입된 정재로서의 무애무가 있다는 점과 원효의 사상을 춤으로 구성하였을 때 가장 원효의 대중 화합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2. 04. 30 : 논문투고 •2012. 06. 01~11 : 심사
•2012. 06. 15 : 수정완료 후 제출 •2012. 06. 18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참고문헌

- 『三國遺事』 「元曉不羈」
『華嚴經』 권5(大正新修大藏經 卷9)
見 登, 『大乘起信論同異略集』 (『續藏經』 71)
김선근, 「元曉의 和諍논리 소고」, 『동국대논문집』 2(동국대경주대학, 1983)
김운학, 「원효의 화쟁사상」, 『불교학보』 15(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1978)
석길암, 「이장의의 사상사적 재고」, 『한국불교학』 28(한국불교학회, 2001)
손지혜, 『원효무애사상의예술적구현-無導舞를중심으로』 (영남대석사학위
논문, 2010)
오법안, 『元曉의 和諍思想연구』 (홍법원, 1989)
_____, 『金剛三昧經論』 (『韓國佛教全書』)
_____, 『大乘起信論別記』 (『韓國佛教全書』)
_____, 『大乘起信論別記』 (『韓國佛教全書』)
_____, 『法華經宗要』 (『韓國佛教全書』)
_____, 『涅槃經宗要』 권38
이만용, 『원효의 사상』 (정망사, 1983)
이종익, 「원효의 근본사상」, 『동방사상개인논문집』 1(동방사상연구원, 1977)
_____, 「元曉의 『十門和諍論』 연구」, 『元曉』 (서울: 예문서원, 2002)
홍윤식·정병호, 「영산재」, 『중요문화재조사보고서』 50(문화재관리국, 1987)
『불교신문』 2623호(5월15일자)-「元曉聖師의 대표작은 『十門和諍論』 이다-원
효성사열반1324주기특별기고」
원효학연구원(<http://www.wonhyo.or.kr/biography.html>)(검색일자: 2011.09.21.)

A Reproduction of Wonhyo's Muaemu based on Sipmunhwajaengron

Chaem, Han-suk
(Daegu National Gukak
Center Choreographer)

Hwajeang is a representative of the ideas in Wonhyo philosophy. So, since modern age, many researchers, has been focused on hwajeang, just the main concept in Wonhyo philosophy. Wanhyo, not only called 'Daeseonghwajeangguksa' by Sukjong of Goryeo Dynasty, but also since that called 'hwajeangosa' in the general.

One more, <sipmunhwajaengron>, that is called the conclusion of his thought, is most important works. However, the writings had lost, so we do not know its full text. Fortunately, since modern times, the prototype was restored by the efforts of many korean buddhist studies scholars. By that, we can see, Wonhyo, at the time of the Silla, try to reconcile many different theories in Buddhism. So he hope to make a unified system of Buddhism in <sipmunhwajaengron>. Sipmuneun mean the ten kinds classified major discussions.

In this paper, the Wonhyo muaemu and the elements of hwa-jaeng philosophy will be represented, according to the ten theories and types in <sipmunhwajaengron>. Thus, we can be supplemented the original Buddhist principle that out of in Jeongjae, Confucian royal court dance is made in the Goryeo dynasty and be succeeded

in the Joseon dynasty and in today Korea, in investigated.

Key word

: Hwajeang, sipmunhwajaengron, Wonhyo, muaemu, represented